

관암 홍경모의 평양에 대한 인식

- 고증학적 학문태도와 관련하여 -

이군선*

|| 차례 ||

1. 서론
 2. 「서경유성화첩」과 평양의 승경
 3. 평양의 고대 유적에 대한 인식
 4. 결론
- 참고문헌

【국문초록】

이 글은 관암 홍경모가 평양에 가서 평양의 승경을 노래하는 한편, 평양의 고대유적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문헌 고증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당시 고증학적 학문 태도의 일 경향을 살펴본 것이다. 관암이 평양의 제일 경관으로 꼽은 것은 연광정이다. 시에서는 평양 승경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며 이 곳의 전설 등을 수용하고 있는 반면, 산문에서는 평양을 조선의 古都와 문명의 고장으로 인식하고 이곳의 유적에 대하여 고증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 단군묘와 동명왕묘에 대해서는 이 곳의 전설에 의문을 품고 문헌을 동원하여 고증을 하였다. 기자에 관해서도 우리나라의 문명을 연 인물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하고 있지만 정전이 기자의 유적이라는 점에는 의문을 표하며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학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하여 당시 고증학이 조선의 학계에 미친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관암의 문헌을 바탕으로 합리적 인식을 추구하는 문헌 고증학적 태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주제어 練光亭, 考證學, 平壤, 檀君墓, 東明王, 箕子, 古都, 史家的 態度, 文獻考證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연구원

1. 서론

서경으로 불리는 평양은 전통적으로 물산이 풍부하고 산수가 아름다운 곳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라고 하였듯이 평양은 명승지와 물산이 풍부한 곳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따라서 평양은 사인이 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자 했던 곳이었다. 耳溪 洪良浩는 평안도 관찰사가 되어 평양으로 부임하며 손자인 冠巖 洪敬謨(1774~1851)를 데리고 갔다. 관암은 이 때 평양을 유람하고 「서경유성화첩」에 그 기록을 남겼는데, 「서경유성화첩」은 평양지역을 유람한 기행기이자 평양과 평양 인근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언제 정리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유기를 모아놓은 『관암존고』가 있는데 그 두 번째 권이 ‘관서’지역에 대하여 기록한 것으로 「서경유성화첩」에 수록되어 있는 記文보다 편수가 더 많다.¹⁾ 그 후 50여년이 지나 관암은 강동현에 나아가 손자인 우명에게 봉양을 받는데 이때에 「오주삼기편」을 남긴다. 「오주삼기편」에는 강동현의 승경과 유람의 감회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오주시지」는 강동현에 대해 시로 쓴 지방지로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²⁾ 본고에서는 홍경모의 평양 유람과 평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홍경모는 문학뿐만 아니라 사학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인물이다. 관암은 조선 후기 고증학 성행의 영향을 받아 평양의 역사 유적에 대하여 고증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 평양 지역의 고대 유적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라고 확정지어 말한 것도 없다는 결론을 도출

1) 『관암존고』2에는 「서경유성화첩」에 있는 기문 중 기도연혁기만 없고 나머지는 모두 수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경형승기, 서경사성기, 승령전기, 승인전기, 인현서원기, 은태사화상기, 기자궁유허기, 단군묘기, 동명왕묘기, 람전향사기, 금수산기, 창광산기, 중앙주유기가 더 수록되어 있다. 내용을 보아도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후대에 정리하여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2) 이군선, 「시로 쓴 지방지 - 오주시지」(『동방한문학』 26집, 동방한문학회, 2004.6)

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전해오는 전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관암이 이렇게 평양과 그 인근 지역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조부인 이계가 이곳에서 선정을 폈고 그 결과 관암이 이 지역을 자신의 고향처럼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관암의 기록을 통하여 고증학이 조선후기 사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와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를 기록으로 남겨주려 했던 관암의 남다른 기록정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경유성화첩」과 평양의 승경

1) 「서경유성화첩」의 내용³⁾

- 3) 「西京有聲畫帖」은 『관암유사』3에 실려 있다. 「西京有聲畫帖引」이 먼저 나오고 이어 詩가 나오는데 총 84제 111수이다. 시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冒雨宿高陽, 曉發碧蹠, 午炊坡州, 渡臨津, 東坡途中, 次東坡韻, 招賢院, 松京, 清香閣, 周覽諸勝 便有懷古之意而懷古之作自古皆難 遂集詔使開城詩以弔之, 欲登天磨縱觀朴淵而行未紆回遠望悵悵路逢歸僧畧問其勝以作後期, 青石洞, 金郊道中, 迴瀾石, 逢碧城客携到映水屏括覽水石之勝, 金巖途中, 向平山, 東陽館敬次王父板上韻感懷, 蔥秀, 翠屏山, 秋望, 夕抵龍泉韓君鐸慕來迎戲作長歌, 鳳山途中, 曉發, 馬上口號, 洞仙關, 黃州, 月波樓, 渡大同江入箕城, 練光亭, 愛蓮堂小酌, 重陽泛舟清流壁下溯上浮碧樓, 浮碧樓, 得月樓, 麒麟窟, 九梯宮舊址, 綾羅島, 乙密臺, 長樂宮故墟, 謁殷太史像, 謁東明王廟, 武烈史, 謁箕子墓, 忠武祠, 泛舟練光亭下, 泛舟月夜與李士仁 羲山 對飲, 向成都, 安樂宮故址, 宿江東, 萬柳隄, 檀君墓, 登訪仙嶺俯臨降仙樓, 降仙樓, 夜坐降仙樓, 留仙觀月夜, 夜汎沸流江, 十二峰歌, 望紇骨城故址, 出訪仙門, 燕申堂夜酌, 多景樓月夜與李十三聽琴, 鏡波樓, 井田故址, 練光亭送內兄, 多景樓賞月, 晚上練光亭, 登練光亭放歌, 練光亭漫題, 西山大師歌, 東援諸將筆蹟歌, 和花隱寄示韻, 初夏與鄭友一元 東萬 上鏡波樓酒三行移席小舟溯至浮碧樓登賢已旋下中流命舟子勿棹仍拈韻共賦, 奮武臺初成大酺武士敬次席上韻, 嬋娟洞, 秋七月既望泛舟遊於清流壁之下, 泛大同江下三十里上石湖亭, 重陽, 萬景臺, 谷山途中, 曉發雲巖, 百祥樓, 又次板上韻, 望妙香山, 望京樓, 시에 이어 記 20편이 있는데 거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西征記, 西京記, 箕子墓記, 井田記, 九梯宮遺墟記, 練光亭記, 浮碧樓記, 鏡波樓記, 奮武臺記, 快哉亭記, 多景樓

관암이 처음 평양을 여행하게 된 동기는 이제 홍양호가 평안도 관찰사가 되어 평양에 부임할 적에 모시고 간 것이다. 「서경유성화첩인」을 살펴보면 관암이 평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와 유람의 경위가 잘 나타나 있다.

서경은 기자의 고도이다. 산천이 아름답고 풍기가 함축되어 왕자가 옮겨 사는 곳이 되었는데, 본조에 이르러서 군현으로 삼고 평양부라 하였다. 정사를 펴는 곳을 설치하여 관찰사로 부윤을 겸하게 하였으며 대동강가에 영채를 열었으니 팔도의 목이요 두 나라 사이의 문지방이다. 용이 서리고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은 듯한 견고한 성으로 변경(汴京)의 형승과 비슷한 점이 있다. 배와 수레가 모이고 물산이 풍부하여 거의 임치(臨淄)의 부유함에 버금간다.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은 팔도에서 으뜸으로 울연히 웅대한 울타리와 큰 도회지가 된다. 게다가 전당(錢塘)의 아름다움을 겸하고 있어 승경을 택하여 누정을 만들고 날마다 노닌다. 이러한 일은 개이거나 비 오거나 꽃피는 달이거나 간에 사시의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국에 사신가거나 나그네로 이 곳을 지나는 사람과 시인과 문인으로 이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강남으로 일컫지 않는 이가 없다.⁴⁾

관암은 서경을 기자의 고도로 인식하고 있다. 조선 시대 대부분의 사인들 역시 평양이 기자의 고도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양을 箕城이라 부르며 송인전을 평양에 세워놓고 사신의 행렬이 지날 적마다 참배하였다. 이는 이 땅에 문명을 처음 열었다는 관점에서 기자의 공로를 인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관암은

記, 石湖亭記, 上甲壇記, 降仙樓記, 仙樓陪遊記, 武烈祠記, 箕都沿革記, 清流泛月記, 安陵記, 多景樓夜話記.

- 4) 『外史後編』10, 「西京有聲畫帖引」 西京 箕子古都也 山川佳麗 風氣函畜 爲王者所更居之地 而至本朝郡縣之曰 平壤府 置布政司 以觀察使兼府尹 開營于大同江上 咽喉八路 闔泉兩國 龍盤虎踞 金城湯池 有似乎汴京之形勝 舟車都會 民物殷賑 殆亞於臨淄之富庶 華麗侈靡 甲於八路 蔚然爲雄藩大都 而又兼有錢塘之美 擇勝而治亭榭 日惟燕遊之 是事晴雨花月 四時之樂不絕 是故 使華賓旅之適是邦者 騷人韻士之過是地者 莫不以我東之江南稱之也

기자의 유적에 대해 단군 동명왕 유적에 비해 보다 긍정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어 평양의 지리적 위치와 물산의 풍부함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강남이라 말하고 있다. 강남은 부유의 상징으로 언제나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시인과 묵객이 이곳을 유람하였음을 말하여 평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를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나는 신해년(1791) 가을에 영아(營衙)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다음 해 겨울에 서울로 돌아왔다. 두 해 사이에 족적이 거의 서경에 두루 미쳤으며 성도와 안릉에까지 이르렀다. 산천과 누대의 기이하고 장엄함과 성시와 백성들의 변화함 및 명승고적과 고사로 이야기되고 읊어지는 것, 느끼고 보고 마음으로 이해한 것들을 곳곳마다 모두 기록하였지만 경계는 넓고 뜻은 성글어 붓을 잡고 머뭇거리며 높은 곳에 올라 시를 지으며 사물을 만나면 즉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사람에게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탄식하였다. 아아. 서경이라는 이름은 고려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경물의 아름다움을 고급에 독차지 하였다. 경치의 아름다움은 연광정과 부벽루가 있기 때문이다. 시험 삼아 연광정과 부벽루에 올라보면 그림의 경치가 아닌 것이 없다. 사람으로부터 보면 나도 그림 속에 있고 그림 속의 사람으로 그림 속의 경치를 대하면 진짜 경치가 그림과 같고 그림도 진짜 경치와 같아 그림은 아니지만 그림에 비유하며 그림으로 그림을 보는 것은 거의 그림이 소리 없는 시이고 시가 소리 있는 그림과 같기에 인하여 그 시문 몇 편에 西京有聲畫帖이라고 명명하였다.⁵⁾

관암이 서경을 유람하게 된 계기와 유람한 지역, 그리고 평양 승경의 으뜸으로 연광정과 부벽루를 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암이 유람한 지

5) 『外史後編』10, 「西京有聲畫帖引」 余於辛亥秋 侍杖屨于營衙 越明年冬還于洛 兩載之間 足跡殆遍於西京 而轉至于成都安陵之間 山川樓臺之奇壯 城市人民之繁華 暨夫勝蹟故事之談詠者 感覽會心 在在可記 而境濶意踈 臨毫沾滯 殊愧夫登高能賦 遇物能名之才 爲之三嘆 噫 西京之號 自麗而始 以景物之勝 擅于今古 而勝之擅 以其有練光浮碧也 試登練光浮碧而觀之 無非畫之景 而自人視之 我亦在於畫中也 以畫中之人 對畫中之景 則真境似畫 畫亦似真境 非畫而喻畫 以畫而觀畫 殆如畫是無聲之詩 而詩是有聲之畫也 仍名其詩文幾篇曰 西京有聲畫帖

역은 평양뿐만 아니라 인근의 강동현과 성천에까지 평양 일대를 두루 유람 하였음을 위에서 제시한 목차를 통해 알 수 있다. 관암은 자신의 시문이 곧 사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자신의 시문집은 군읍의 연혁과 강역의 분합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산천의 험이와 누대의 증손 고적과 명승 인물과 풍요 등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⁶⁾ 「서경유성화첩」 역시 관암의 언급대로 산천과 누대, 명승과 고적, 자신의 느낌 등을 모두 기록하였다고 하였다. 「서경유성화첩」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평양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에 자신의 시문집을 「서경유성화첩」이라고 명명한 이유에 대하여 연광정과 부벽루에 올라 바라본 광경이 한 폭의 그림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어 살펴보겠지만 관암이 평양 승경 중에서 최고로 여긴 곳은 연광정이었다. 이상으로 「서경유성화첩」을 중심으로 평양에 대한 간개와 「서경유성화첩」이 담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평양의 승경에 대하여 어떻게 읊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평양의 승경

다음 시는 관암이 대동강을 건너 평양에 막 발을 들여놓을 때의 감정을 노래한 것이다. 이 시는 평양 전체를 개관한 듯하다.

箕家開國竟蒼茫	기자가 나라 연 지 아득한 세월 지났는데
白馬歸天淚水長	백마가 하늘로 올라간 뒤 패수 계속 흘렀네
形勝居然一都會	형승은 자연스레 한 도회지를 형성하여
繁華從古小錢塘	번화하기가 예부터 작은 전당이라 불렀네
閭閻撲地笙歌咽	땅 가득한 여염집엔 노랫소리 요란하고

6) 「관암 홍경모의 시문과 그 성격」,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64면.

樓閣橫空枕席涼 허공에 비긴 누각에는 침석이 시원하다
 芳草年年南浦雨 매년 향기로운 풀 남포에 비내리니
 官娃猶誦鄭知常⁷⁾ 관기는 아직도 정지상의 시구 읊조리네

기자가 도읍한 곳이라고 하여 기성이라 불리는 평양은 세월이 아득히 흘러 고구려 동명왕이 도읍한 지도 한참이 지났다. 평양의 형승은 자연스럽게 도읍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으로 항상 중국의 금릉과 절강성에 비유되었다. 그만큼 물산이 풍부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전반 네 구절에서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역사사실을 읊었다면 후반부 네 구절은 관암이 평양에 가서 느낀 것을 노래한 것이다. 평양은 풍요로운 물산을 바탕으로 매우 변화하였으며, 이렇게 변화한 곳곳에 펼쳐진 승경지에 있는 누대에 누우니 시원하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하다. 이 누대에서 이런저런 궁리하며 시구를 찾는데 정지상의 시구를 읊조리는 관기들에게서 아직까지 평양 사람들의 뇌리에 살아있는 평양을 가장 사랑한 고려 시인 정지상을 떠올리고 있다.

다음은 연광정에 대하여 읊은 시이다.

麒麟仙子去不廻 기린 탄 신선 떠나가 돌아오지 않으니
 白雲千載餘空臺 흰구름은 천년 세월에 빈 누대에 남았구나
 第一江山小金陵 제일강산 작은 금릉이라고
 繁華佳麗自古稱 변화하고 아름답기 예부터 일컬어졌네
 錦繡峯綾羅島 금수봉에 능라도에
 皇華昔日映彩藻 옛날의 중국 사신 고운 이름 붙였구려
 碧紗籠紅錦幃 벽사롱과 홍금표에
 今古幾人留歌謠 고금의 몇 사람이 노래를 남겼는가
 長城一面溶溶水 장성 한 모퉁이 넘실대는 물결
 大野東頭點點山 대야 동쪽 머리 점점이 산이로다

7) 『관암유사』3. 「渡大同江入箕城」.

翰林佳句揭楣間	한림의 아름다운 시구는 문미 간에 걸려있는데
淸江錦石傷心麗	맑은 강 고운 돌은 마음에 시리도록 곱구나
嫩蕊濃花滿目斑	꽃술 짙은 농염한 꽃이 눈에 가득 아롱대니
那知杜老詩中景	어찌 알았으랴, 두보의 시 가운데 경치가
却在今日眼前看	도리어 지금 안전에 펼쳐질 줄
大兒鄭知常	큰 솜씨 정지상에
小兒李益之	작은 솜씨 이달이니
蓮葉歌南浦句	연엽가와 남포의 노래는
留作檀板竹枝詞	아직도 박달나무 현악 위에 죽지사로 남아 있어
諸子紛紛總下風	시인들 모두가 차운하기 바쁘니
我亦停盃夕陽中 ⁸⁾	나 또한 석양 속에 술잔을 멈추노라.

관암이 평양을 유람하며 평양 제일의 승경으로 삼은 곳은 연광정이다. 이는 주)1에서 보듯 연광정을 제목으로 삼은 시가 제일 많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암존고』 「연광정기」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성이 뛰어난 것은 강산 때문이다. 강산의 아름다움은 중국의 강남과 같은데 게다가 또 누대로 그 신경을 도우니 이것이 연광정이 강산과 서로 만나 기성의 승경이 된 것이다.(箕城之勝 以江山也 江山之佳麗 如中國之江南 而又以樓臺助其神景 此練光亭之與江山相遇爲箕城之勝也)”라고 하여 평양이 유명한 것은 경치 때문인데 그 경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은 연광정이라며 연광정에 대하여 극찬하였다. 『관암유사』에 나오는 「연광정기」에도 서도 강산의 아름다움은 평양이 제일이고 평양의 승경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연광정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 자신의 발언이 아니라 중국 사람의 입을 통하여 연광정의 승경이 악양루에 뒤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서도 강산의 아름다움은 평양만한 곳이 없고 평양의 누대의 승경은 또한 연광

8) 『관암유사』3, 「登練光亭放歌」.

정만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산과 누대가 서로 만나 아름답고 변화하며 부귀한 오 지방을 바탕으로 밤낮으로 변화가 같지 않으며 인물과 읍을 겸하여 소유하고 있어 이로써 중국에 이름났다. 왜군을 정벌하는 전쟁에 중국에 여러 장수들은 대부분 강남사람이었는데 모두 형승이 악양루보다 아래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또한 천하의 형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태사 주지번의 '제일산(第一山)' 이라고 세자를 썼는데 백하 운순이 '강(江)' 자를 '일(一)' 자 아래에 보태어 써 넣어 들보 위에 새겨 걸어 놓았다. 석봉 한호도 동쪽 문미에 편액을 써 놓았는데 두 분의 필력이 거의 용을 잡고 호랑이가 뛰는 듯하여 연광정과 서로 걸맞는다.⁹⁾

위 시에서는 명나라 사신 주지번이 평양의 연광정에 올라 보고 제일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준 사실을 들며 경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광정기」에서는 여기에다 명필로 이름이 높은 백하 운순과 석봉 한호의 편액에 얽힌 이야기를 덧붙여 연광정과 서로 알맞게 조화되고 있음을 말하였다. 이어 고려의 시인인 김황원이 '長城一面溶溶水 大野東頭點點山'이라는 시구를 지어 놓고 대구를 이루지 못하고 통곡하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아무리 훌륭한 시인이라 할지라도 연광정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표현해 내지 못함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연광정에서 바라보이는 아름다운 경치는 시의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는 두보라야만이 묘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어찌 알았으랴 두보의 시 가운데 경치가 도리어 지금 안전에 펼쳐질 줄은 바로 이러한 생각을 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시구는 대동강을 소재로 한 시 중에서 걸작으로 치는 정지상과 이달¹⁰⁾을 들어 수많은 시

9) 『관암유사』3, 「연광정기」 西都江山之美 莫如箕城 而箕城樓臺之勝 亦莫如練光 故江山樓臺 與之相遇 佳麗繁華 以資富貴之吳 而晦明變化之不同 人物邑居之兼有 以是名於國中 征倭之役 天朝諸將 多江南人 皆以爲形勝不下岳陽樓 然則亦可謂天下之勝也 得朱太史之蕃書第一山三字 白下尹公足書江字於一字下 鐫揭于樑上 韓石峯書扁榜之東楣 兩公筆力 殆如龍挈虎騰 亦與斯亭相稱也

10) 『손곡집』, 「采蓮曲 次大同樓船韻」 蓮葉參差蓮子多 蓮花相間女郎歌 來時約伴橫塘口 辛苦移舟逆上波

인들이 이곳에 와서 시를 지었음을 이야기하였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를 지었지만 이름있는 작품으로 이 두 사람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연광정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광경을 제대로 포착해내기 어려움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이려면 누구나 이곳에서 시를 지어대는데 자신 역시 마시던 술잔을 멈추고 시를 짓느라 고민하는 모습을 그려놓았다. 이 역시 시인이려면 누구나 이곳에서 시를 짓지만 연광정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표현해 내기 어렵다는 고백인 것이다.

다음은 부벽루에서의 감회를 드러낸 시이다.

開國會何歲	나라 연 지 몇 해나 지났던가
繁華屬此亭	번화함은 이 정자에 다 모였네
倒浮連檻碧	물에 비친 광경은 푸른 난간과 이어있고
平挹遠峯青	멀리 푸른 봉우리와 나란하다네
鉤倚滄江月	검은 푸른 강물에 뜬 달 의지하고
燈懸半夜星	등불은 한밤중 별빛에 걸려있네
麒麟餘舊窟	기린은 옛 굴만 남겨놓았는데
草木至今馨 ¹¹⁾	초목은 지금까지 향기롭네

대동강에서 청류벽을 끼고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누각이 대동강을 굽어보고 있는데 이것이 부벽루이다. 부벽루 뒤에는 구제궁유허가 있으며 아래에는 동명왕이 하늘에 일을 고하러 올라갔다는 조천석이 있다. 관암은 이곳에서 그 옛날 동명왕 시절을 떠올리고 있다.

평양이 수도가 된지 이미 수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옛 수도의 위용을 자랑하듯 부벽루에는 온갖 번화함이 모두 모여 있다. 이는 뒤에 있는 구제궁유허를 옆두에 두고 쓴 것이다. 이어 부벽루의 경치를 그리고 있다. 부

11) 『관암유사』3, 「浮碧樓」.

벽루 아래 푸른 강물에 비치어 보이는 경치는 평양 주변의 승경을 모두 물속에 잠겨 놓은 듯하다. 이러한 곳에 달이 뜨자 달과 누각을 비추기 위해 켜진 등불이 모두 물에 잠겨 별빛과 나란하였다. 이러한 곳에 혼자 있노라니 옛날 동명왕이 타고 갔던 기린마가 떠오른다. 비록 기린은 떠났지만 부벽루 아래에 남아 있는 기린굴 주변의 초목에선 아직도 그 때의 향기가 묻어나는 듯하다.

이렇게 관암은 평양주변에 대해 시를 통해서만 경치의 아름다움이나 감회 등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산문에서는 문헌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고증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3. 평양 고대 유적에 대한 인식

관암은 「서경기」의 첫머리에 “서경은 조선의 고도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조선은 단군으로부터 시작하였고 서경이 도읍이 된 것도 그 때부터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암의 평양에 대한 인식은 ‘古都’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평양에 대하여 묘사하며 “관서 한 지역은 조선 전국에 있어 토종이 된다. 산하가 맑고 수려하며 풍기가 함축되어 있다.”고 말하고 “조선에 관서가 있는 것은 중국에 하남이 있는 것과 같고 중국에 하남이 있는 것은 사람의 몸에 배와 심장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평양의 지역적 특성에 대하여 풍수의 내용을 이끌어 설명하고 있다. 이문통이라는 중국 사람이 지리에 능통하였는데 평양의 형승에 대하여 만년의 왕기가 있다고 하였다. 선조는 지관들에게 명하여 이문통과 함께 택지를 살피게 하여 모란봉에서 맥을 찾아 아래로 내려와 문묘에 이르러 해악산을 바라보고 “단지 흙은 坤未方에 속한다는 것이다. 만약 조금만 동쪽으로 있었다면 왕업이 무궁한 곳이니 어찌 만년으로 한정지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는 즉

시 붓을 가지고 눈 아래의 산천을 그리며 “원근의 봉우리가 모두 평양을 받고 있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물이 성에 너무 가까이 있으니 흙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자 문통이 그 사람을 노려보며 금릉에 비유했다고 한다.¹²⁾ 이러한 이야기를 소개한 관암의 생각에는 평양은 중국의 금릉과 절강성에 해당할 만큼 아름다운 산수와 풍부한 물산이 있기에 평양이 고도가 될 수 있었다는 관점이 자리잡고 있다. 평양이 고도가 될 수 있었던 조건에 풍수설까지 곁들인 것이다. 관암은 평양이 조선의 고도이며 기자의 영역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기존의 관점을 그대로 수용한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사실에 대하여는 꼼꼼하게 따져보는 고증학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유구한 역사 고도 - 단군과 동명왕의 유적

평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고구려의 수도일 것이다. 관암 역시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평양의 유적에 대하여 단군 동명왕을 기록하고 있다. “서경은 조선의 고도이다. 역내 여덟 구역의 하나로 서울의 서북쪽에 있다. …… 조선이 나라를 세운 것은 단군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서경이 도읍이 된 것도 그 때부터이다. 천여 년 뒤에 기자가 동으로 왔으며 또 천년이 지나 덕이 쇠하게 되자 위만에게 빼앗겼는데 위만은 연나라 사람이다. 왕검성에 도읍하였는데 왕검성도 평양이다. 이것이 삼조선으로 뒤에 낙랑에 편입되었다. 고구려는 처음에 졸본부여에서 시작되었는데 뒤에 점점 동남쪽

12) 『冠巖存稿』2, 「西京形勝記」 華人李文通 善堪輿 言平壤形勝有萬年王氣 宣廟命相地者三人 與文通相宅 自牧丹峯 尋龍而下 至文廟 望海鴨山曰 只欠此山屬坤未方耳 若差東則王業無窮之地 豈可限以萬年哉 卽取筆畫眼底山川曰 遠近峰巒 皆拱于平壤也 一人曰 水薄城下 得無欠乎 文通瞋目曰 金陵天下名都 古人詩曰 石頭城下泊 此金陵形勝也 蓋其形勝之與金陵相同者 惟以長城一面之水 大野東頭之山 作爲佳麗之區

으로 이사하여 평양에 도읍하니 도읍이 된 것이 요순 시대에서 당에 이르렀으니 성대하고 오래되었다고 할 것이다.”¹³⁾ 이는 관암이 본 평양의 건도 연혁이다. 이러한 사실이 있었기에 평양에는 단군의 유적, 기자의 유적, 고구려의 유적이 공존하고 있었을 것이다. 기자의 유적에 대하여는 다음에 언급하기로 하고 단군과 동명왕의 유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단군의 유적에 관해서이다. 단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승령전기」와 「단군묘기」이다. 승령전은 단군과 동명왕을 모신 사당이다. 관암은 “단군은 동방에서 처음 나온 성인이고 요와 나란히 서서 혼몽한 시기를 열어 혜택을 내려주었으니 중국의 복희 신농과 같은 임금이다. 동명왕에 이르러서는 단군에서 나와 신령하며 괴기하여 나라를 세우고 왕이라 일컬었다. 대대로 끊어지지 않아 거의 천년에 가까웠으니 또한 시조의 제사로써 제사지내는 것도 당연하다 하겠다.”¹⁴⁾라고 하며 단군과 동명왕에 대하여 긍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군묘기」와 「동명왕기」에 이르러서는 단군과 동명왕의 유적이 평양에 있는 것에 대해 문헌 고증과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상식과 어긋나는 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의문을 표하고 있다.

단군묘에 대한 기록부터 보기로 한다.

강동현 서쪽 3리 되는 곳에 큰 무덤이 있는데 왕을 장사지낸 듯하다. 그 곳 사람들은 단군묘라고 한다. 내가 듣고 의심하며 “단군은 산에 들어가서 신이 되었는데 무덤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였다.¹⁵⁾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고 관암은 『江東縣志』와 『輿地勝覽』 등을 고찰하

13) 『冠巖存稿』2, 「西京記」.

14) 『冠巖存稿』2, 「승령전기」.

15) 『冠巖存稿』2, 「檀君墓記」 江東縣西三里有大塚 如王者葬 土人傳以爲檀君墓 余聞而疑之曰 檀君入山爲神 墓於何有

고 『삼한고기』의 “단군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니 요 25년 무진이다.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다. 뒤에 백악으로 옮겼다가 상나라 무정 39년 을미년에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三韓古記曰檀君降于太白山神檀樹下 唐堯二十五年戊辰立爲王國 號朝鮮 都平壤 後徙白岳 商武丁三十九年 乙未 入阿斯達山爲神)”라는 기록을 인용하며 “이미 산에 들어가서 신선이 되었다고 말했으니 이는 죽지 않은 것이다. 죽지 않았는데 어찌 무덤이 있겠는가?(既曰入山爲神 則是不死也 不死而安有墓乎)”라고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묘가 있는 주산을 대박산이라고 한다. 대박을 지금 강동 사람들은 태백이라고 부르는데 산 아래 마침 왕을 장사지낸 것 같은 큰 무덤이 있기 때문에 단군묘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대박산은 다만 한 작은 산으로 결코 태백산이 아니다. 게다가 태백산은 단군이 내려온 곳인데 어찌 꼭 이 산에서 죽어 여기에다 장사지냈겠는가?(蓋墓之主山曰大朴 今江東人呼以太白 而山下適有大塚 如王者之葬 故稱之以檀君墓 然大朴特一小山 決非太伯 況太伯是檀君降生之山 亦何必死葬於是山乎)”라고 하여 대박산에 있는 단군묘가 단군묘가 아닐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러면서도 이에 대하여 전해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고 자신의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로써 “단은 나라 이름이고 그 자손들이 모두 단군이라고 칭하여 아마 후대의 임금들을 이곳에 장사지내고 단군묘라고 통칭했는가보다.(或曰檀是國號 其子孫皆稱檀君 豈後世嗣君 葬之於是 而通稱檀君墓歟)”라고 글을 맺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문헌 고증적인 학문 태도를 견지하는 관암의 학문 자세를 알 수 있으며 또한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음도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동명왕에 관한 의문점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동명왕에 대한 의문은 「九梯宮遺墟記」와 「東明王墓記」에서 드러난다. 관암의 동명왕에 대한 인식은 단군과 마찬가지로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九梯宮遺

墟記」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 「동명왕묘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고구려는 처음에 요동에서 일어나 졸본에 수도를 정하였고 후에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 또 환도성으로 옮겨 290여년을 지낸 뒤 평양으로 천도하였는데 평양을 도읍으로 정한 것은 동천왕 21년으로 삼국사에 이른바 처음에 중국 북쪽에서 살다가 점점 동쪽으로 가서 패수의 곁으로 천도하였다는 것이 이것이다. 동천왕이 이미 평양으로 천도하고 처음으로 성을 쌓고 종묘와 사직을 세운 뒤에 백성을 이주시켰는데 백년이 안 되어 다시 환도로 돌아갔다. 또 동황과 장안 두 성으로 옮겨졌는데 두 성도 평양에 있다. 85년이 지나 장수왕이 평양성으로 돌아와 그 뒤 대대로 평양에서 살다가 보장왕에 이르러 당에게 멸망당하니 시조왕 주몽으로부터 28왕 705년이다.¹⁶⁾

관암은 이와 같이 고구려가 평양을 수도로 정한 내력을 먼저 기술하였다. 그리고 『평양지』의 “고구려 동명왕의 옛 궁궐이 모란봉 아래에 있다.”라는 내용과 고기의 “동명왕 3년 7월 검은 구름이 鶻嶺에서 일어 산이 보이지 않았는데 오직 수십 인이 소리를 내는 것만 들었다. 왕이 ‘나를 위하여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7일만에 운무가 걷히자 성곽과 궁궐이 이루어졌다.(東明王三年七月 有玄雲起鶻嶺 而山不見 惟聞數十人登登作聲 王曰 天爲我土功 七日而雲霧散 城郭宮室成)”는 기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구려의 시조왕은 졸본에서 기업을 시작하였는데 졸본은 압록강의 북쪽에 있다. 평양에 도읍한 것은 주몽보다 300년 뒤의 일이니 그 유적이 졸본에 있어야 하는데 평양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夫句麗之始祖王肇基於卒本 卒本鴨江之北也 都於平壤 在朱蒙後三百年 則其遺跡在於

16) 『관암존고』2, 「九梯宮遺墟記」 高句麗始起遼左 立國於卒本之地 後移都於國內 又遷于丸都 歷二百九十餘年 徙平壤而定都 卽東川王二十一年 而三國史所云 始居中國北地 漸東遷于湏水之側者 是也 東川既遷于平壤 始築城 營廟社 後乃移民居 未百年旋還丸都 又移東黃長安兩城 兩城亦在平壤地 歷八十五年 長壽王還于平壤城 厥後世居平壤 地步藏王爲唐所滅 自是祖王朱蒙 凡二十八王 七百五年也

卒本 而不當在於平壤)”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관암은 구제궁을 지은 것은 동천왕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는 역사의 기록을 따져 얻은 결론으로 평안도 일대에 동명왕의 유적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모두 고구려사에 보이는 것을 부회한 것으로 보았다. 동명왕묘에 대한 기록 역시 이와 비슷하다.

삼국사에 이르길 “고구려 동명성왕 19년 9월에 왕이 승하하시니 49세요 용산에 장사지냈다. 용산은 지금 중화부 동쪽 20리 되는 곳에 있는데 산 아래에 왕의 무덤이 있으니 이것이다.¹⁷⁾”

이에 대하여 관암은 먼저 『대명일통지』의 “요양성 동쪽에 고구려의 동명왕묘가 있다.”는 기록을 인용하여 동명성왕묘의 위치에 의문을 표한다. 이렇게 보면 고구려는 요동에 처음 도읍을 정하였고 또한 그곳에 장사지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용산에 동명왕의 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고대사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려는 자세를 견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을 관암은 평양이 고구려의 수도였다는 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동명왕의 사적을 모두 평양 인근에 접합하려는 데에서 나온 오류라고 판단한 것이다.

2) 문명의 고장 - 기자의 유적

평양은 또한 기성으로 불리기도 한다. 평양이 기성으로 불리게 된 것은 기자가 처음 이곳에 정착하여 교화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평양이 문명의 상징으로 불리게 된 것도 기자의 유적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먼

17) 『관암존고』2, 「東明王墓記」三國史云 高句麗東明聖王十九年 秋九月 王升遐 時年四十歲 葬龍山 龍山在今中和府東二十里 而山下有王者塚者 是也

저 「箕子宮遺墟記」를 살펴보기로 한다.

은태사 기자는 주 무왕이 은나라를 대신하게 되자 그 무리 5000명을 거느리고 중국을 피하여 동쪽으로 나오자 조선은 요동에 거처하였고 단씨가 백악으로 옮겨가게 되자 동국의 父老와 추장들이 모두 와서 기자를 맞이하여 평양에 이르렀다. 이에 기자는 나라를 세우고 평양의 언덕에 도읍을 정하고 여덟 조항의 법을 정하고 정전법을 시행하여 동방을 다스렸다. 1년이 지나자 백성들이 예의 방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3년이 지나자 백성들이 크게 교화되어 문물이 열리고 만이의 습속이 변하여 문화인이 되니 백성들이 기뻐하고 좋아하여 대동강을 황하에 비유하였으며 노래를 지어 칭송하였다. 기자는 무왕과 동시에 나라를 세웠고 망한 것은 난왕이 진나라에 들어간 뒤 63이 지나서이니 역년도 또한 주와 같다.¹⁸⁾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보고 기자를 문명을 연 인물로 보는 것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인식과 같다. 기자가 이 땅의 문명을 연 공적에 대하여서는 관암 역시 이의가 없다. 하지만 「평양지」에 이른 “평양 외성은 기자가 쌓은 것으로 궁터가 중성의 정양문 밖에 있고 정전이 한구문과 정양문 두 문의 밖에 있다.”라고 한 구절에 대하여, “평양이 기자의 고도임은 분명하지만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그 사이에 많은 전쟁을 겪었는데 성 밖의 황폐한 언덕을 보고 기자궁터라고 몇 천 년 뒤에까지 전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와 아울러 기자의 정전이라고 하는 것도 어긋남이 너무 심하여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 근거로 등 문공이 맹자에게 정전에 대하여 질문하자 맹자가 ‘雨我公田’ 시 한 편만 들

18) 『관암존고』2, 「箕子宮遺墟記」 殷太師箕子當周武王之代殷 率其徒五千人 避中國東出朝鮮 居遼水之左 及檀氏徙白岳 東民父老酋長咸來 迎箕子 至平壤 於是 箕子立國建都於平壤之丘 約法八條 畫地井田 治東方朞年 民知有禮義之方 三年民大化 文物開荒 變夷爲夏 百姓歡樂 以涓水 比黃河 作歌以頌之 箕子與武王同時而立國 其亡在赧王入秦後六十三年 歷年亦與周相終始

였을 뿐이라고 하며 이는 호사가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결코 기자의 제도가 아닐 것이라고 단정한다.¹⁹⁾ 이러한 관점은 「기자전기」에 그대로 이어져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기자는 은나라의 遺老로 해동에 봉을 받았으니 은나라 사람으로 은나라의 법을 시행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인정은 반드시 경계를 바르게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단지 평양 한 모퉁이에만 유제를 남겨놓고 전국에 시행하지 못한 것은 어찌 산천과 도리가 각각 달라서 그러한 것이겠는가?²⁰⁾

한 나라에 토지제도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어야 하지 어떻게 한 지역에만 실행될 수 있는냐는 반문이다. 기자가 정전을 시행하였다면 전국적으로 시행하였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기자의 정전 제도가 적어도 평양에서는 곳곳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관암의 생각인 것이다. 그리고 기자의 정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정전이 남원에도 있는데 이는 유인계가 “대방주자사가 부를 열고 주둔했던 옛 제도이다. 결코 기자와 관계가 없다.”고 한 말을 인용하고 잘 알지 못하겠으므로 이런 저런 설을 끌어 기록하여 일설에 대비한다고 하였다.²¹⁾ 이러한 관암의 사고에는 철저하게 문헌을 통하여 고증할 수 있는 내용을 신뢰하고 문헌이 없거나 합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후대의 고찰로 미루는 사가적인 관점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 『관암존고』2, 「기자궁유허기」.

20) 『관암존고』2, 「箕子田記」箕子以殷室遺老 受封於海東 以殷人行殷法 此所謂仁政 必有經界始 而只留遺制於平壤一隅 不行於國內者 豈以山川道里各自不同而然歟

21) 『관암존고』2, 「箕子田記」.

4. 결론

이상으로 관암 홍경모의 평양기행과 평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관암은 조부인 이계 홍량호를 따라 평양을 유람하게 된다. 이 여행에서 관암은 「서경유성화첩」을 남기는데 시에서는 평양의 승경과 유람의 감회를 읊어 놓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관암의 기록에서는 우선 평양이 단군과 기자, 그리고 동명왕의 고도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그 유적들에 대하여 회의를 하고 있다. 이는 문헌을 통한 일차적인 고찰을 하고 각각의 문헌에서 보이는 상이한 내용을 일일이 제시하며 고증해 나가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관암의 고증적인 학문자세를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기록이라고 해서 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사고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다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암 기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자료

『冠巖存稿』

『冠巖遊史』

『冠巖山房新編耘石外史』

『蓀谷集』

■ 저서 및 논문

이군선, 「시로 쓴 지방지-吳洲詩志」, 『동방한문학』 26집, 동방한문학회, 2004

——, 「관암 홍경모의 시문과 그 성격」,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Abstract

Gwanam Hong Kyung-mo's recognition of Pyungyang
- Related to his attitude of study of historical inquiry

Lee, Goon-Seon

This paper deals with the study of historical inquiry of Gwanam Hong Kyung-mo and takes a glimpse of the academic tendency of those days. On the one hand, Gwanam sang the beauty of Pyungyang, on the other he had a doubt on relics in Pyungyang. And through the historical and textual approach he tried to find a truth about them.

The most beautiful pavillion for him was the Yungwang Pavillion. In poetry he depicted the beauty of Pyungyang and acknowledged the legends surrounding it. In prose he recognized Pyungyang as a ancient capital city of Chosun but studied these relics by the method of historical inquiry : as for the Tangun Mausoleum and the King Dongmyung Mausoleum, he threw doubt on their legends on the bases of various texts. On Kiza Gwanam admitted him as a founding father who had constructed civilization. But he also had a doubt on the allegedly specific vestige of Kiza's land system, Jingtian.('well field': land in the shape of the character '井') So he proved his doubt on a logical basis.

Through Gwanam's argumentation we could estimate that how much the study of historical inquiry influenced on Chosun academy in his days and also make sure of his attitude of study which was pursuing the rational recognition on the basis of text.

Key Word

Yungwang Pavillion, study of historical inquiry, Pyungyang, Tangun Mausoleum, King Dongmyung, Kiza, ancient capital city, historian attitude, textual criticism